영농자재 부가세 환급 받아가세요

농협 15일까지 접수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용순)는 농업인이 지난해 4·4분기 중 영농자재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사후 환급 신청을 오는 15일까지 받는다.

지난해 10월부터 연말까지 영농자재를 구입한 농업인은 구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소재지 농협에 신청하면 구입대금의 10%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3·4분기 중 신청누락분도 포함된다.

환급대상 농자재는 농업용 PE필름, 농업용파이프, 농업용 포장상자, 농업용PP포대, 과일봉지, 차광막, 농업용부직포, 농업용배지 등이다.

지난해 2·4분기부터는 축산업용톱밥, 이앙기용 멀칭종이, 동력파종기, 농업용양수기, 볍씨발아기, 동력배토기, 동력예취기 7개 품목이 추가로 환급대상에 포함됐다. 농업인 실익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는 농업인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에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고 나중에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해외시장개척요원 모집

광주·전남중기청 24일까지

광주·전남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센터장 장순호 청장)는 우수한 국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 해외시장조사, 바이어발굴 및 상담 등 해외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해외시장개척요원을 오는 2월4일까지 모집한다.

선정된 해외시장개척요원에 대해서는 국내교육비, 항공료 및 여행자보험료, 현지체제비(50~100%)를 지원하며 파견기간 동안 활동실적이 우수할 경우 성과급을 지급한다.

국내교육은 2월26일부터 3월16일까지 실시되며, 오는 3월 중 6개월간 파견희망국가에 파견될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4대 보험이 가입된 근로자에 한한다. 또 파견국가의 해당언어 또는 영어소통이 원활한 45세 이하여야 한다. 문의(062)360-9195.

/이종태기자 jtlee@

소상공인 창업문턱 높아진다

정부 지원자금 지난해보다 500억원 축소

신보재단 출자금도 내년 폐지…자금난 우려

정부가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소상공인 지원자금 규모를 줄이면서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창업 및 운영자금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히 매칭펀드방식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자하는 자본금도 내년부터 아예 없애기로 해 광주·전남지역 등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산하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자칫 부실화마저 우려되고 있다.

9일 광주와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4천억원가량 지원하던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을 올해는 3천500억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가 출연하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은 광주·전남 등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인들에게 공급된다.

도·소매업 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으면 은행에서 무담보로 5천만원 한도에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창업 및 운영자금으로 요긴하게 사용돼 왔다.

지난 한해동안에만 해도 지역내 영세 소상공인들은 광주신보와 전남신보를 통해 총 3천315건에 735억원의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을 받았다.

특히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은 지역신보의 전체 보증액가운데 70%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광주·전남지역내 영세업체수는 도·소매업 6만8천개, 음식·숙박업 4만6천개 등 20만개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경우 각각 47명과 70명당 1개꼴로 영세한 실정이다.

이와함께 정부가 지자체와 2대3의 비율로 지역신보에 출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없애기로 해 지자체의 재정상태에 따라 지역신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신보들은 자본금 역할을 하는 기금을 기준으로 기금의 15배까지 보증금액을 늘릴수 있도록 돼 있어 기금이 적은 신보의 경우 보증규모가 축소되고 이는 결국 지역내 영세 소상공인들의 대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말 현재 광주신보의 기금은 340억원이다.

광주신보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은행출연금제도를 도입해 기금을 늘리수 있게 됐지만 미미한 수준"이라며 "광주·전남처럼 지자체 재정이 빈약한 곳은 지역신보 부실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볼수있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

"젤리초를 아시나요" 9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을 찾은 고객들이 젤리초를 신기한 듯이 살펴보고 있다. 7층 인테리어 소품매장인 '프로방스'는 장미꽃·튤립·나비모양 등 다양한 모양의 젤리초(젤리처럼 말랑말랑한 초)를 개당 8천원~1만2천원에 판매하고 있다. 〈롯데백화점광주점제공〉

광주·전남·북지역 부가세 신고 대상자 39만4,000명

오는 25일까지 광주, 전남·북 지역에서 2006년 제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 대상자는 개인 35만7천명, 법인 3만7천명 등 39만4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정병춘)은 "이번 신고에서는 그동안 누적된 세원관리 내역 및 조사결과 나타난 탈루유형 등에 근거, 신고시 유의할 점과 구체적 문제점을 적시한 서면 안내문을 발송해 성실신고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또 신고종료 후 성실신고 여부를 조기 검증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거나 계속 개별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별로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개최해 수임업체에 대한 성실신고를 촉구하는 한편 사업자의 개별 분석자료를 대리인에게도 발송, 신고에 반영하고 신고내용을 사후관리하기로 했다.

/이종태기자 jtlee@

광주·전남 中企 올 경기 '흐림'

지난해 이어 소비위축·내수부진 전망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광주·전남지역 중소제조업의 경기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회(지회장 강영태)가 106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건강도지수(SBHI=100이상이면 전월보다 호전)를 조사한 결과, 1월 중소제조업 업황전망에 대한 SBHI는 전월보다 1.9P 하락한 85.1로 나타났다.

소비심리 위축에서 비롯된 내수부진과 은행금리의 상승으로 인한 경제여건의 악화, 세계경기 둔화에 이은 환율급락으로 인한 수출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체감경기가 당분간 개선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업의 판매활동을 나타내는 지표인 내수판매전망 SBHI는 79.9로 전월대비 5.2p 하락, 수출전망 SBHI는 62.9로 전월보다 무려 21.7p 하락해 수출판매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전망을 보였다.

광주·전남지역 중소제조업의 11월 생산설비 가동률은 70.8%로 전월 69.8%에 비해 1.0%p 상승했으나 여전히 정상가동률(80%)에는 미치지 못했다. 기업경영상 가장 큰 애로사항(복수응답)은 내수부진(53.9%)이 가장 많았으며, 인건비상승(44.1%), 판매대금 회수지연(41.2%), 업체간 과당경쟁과 원자재값 상승 및 구득난(40.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정 병 춘 신임 광주지방국세청장

"생산적 中企 세무조사 유예 따뜻한 세정 실현에 최선"

"국민의 입장에서 소리없는 납세자의 요구가 무엇인지 귀담아 듣고 실천하는 '따뜻한 세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부임한 정병춘(53)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이를 위해 지방청과 세무서간 능동적인 업무분담체계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청장은 ▲올해 과세대상이 더욱 확대되는 종합부동산세 ▲새로 시행된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가과세제도 ▲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예정인 근로장려세제(EITC) 등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점검하고 ▲현금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에 도 큰 관심을 갖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 정 청장은 "기업경영에 전념하는 생산적 중소기업과 경영애로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등을 자제하고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고 천명했다.

이와 함께 정 청장은 직원들에게 "공직은 권한이 아니라 책임으로 언제든지 국민에게 헌신적인 자세를 갖도록 해야 한다"면서 "서로 화합하고 늘 감사하는 조직문화를 발전시키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영광 출신으로 성균관대를 나온 정 청장은 1979년 행정고시를 거쳐 공직에 첫발을 내디뎠다. 국세청 법무심사국장·정책홍보관리관을 역임했다.

부인 김윤희씨와 2남을 두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

서비스업 성장 80년대 日本 수준

외환위기 前보다 크게 하락

현재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의 80년대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성장성도 외환위기 전보다 크게 하락하고 있어 육성 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서비스업의 경영분석지표 추이'에 따르면 2005년 기준 우리나라 서비스업 부가가치(명목) 비중은 56.3%로 일본(69.4%)이나 독일(69.8%)보다 훨씬 낮았다.

일본과 독일은 이미 1980년에 각각 57.4%와 56.6%를 기록했다.

서비스업 전체의 성장성을 매출액 증가율(연평균)로 살펴보면 외환위기 전(1990~1997년) 18.3%에서 외환위기 후(2002~2005년) 3.5%로 크게 하락했다.

여행알선·창고·운송관련 서비스업이 13.7%에서 16.1%로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업종의 매출액 증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특히 도·소매업(18.6%→1.8%)의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다만 서비스업의 수익성(총자산경상이익률)은 외환위기 전 2.2%에서 외환위기 후 5.9%로 호전됐고 부채비율도 387%에서 139.9%로 낮아져 재무구조는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서비스업의 이같은 경영성과는 국내 제조업과 비교할 때도 모두 열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의 경우 2002~2005년 성장성은 9.3%, 수익성 6.9%, 부채비율 100.9%를 각각 기록했다.

/연합뉴스

오늘의 주식시세 인터넷 광주일보 홈페이지에 (www.kwangju.co.kr)